

TOURISM SCOPE

E-book

Volume 27
2013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11개국 71개 도시 정부와 36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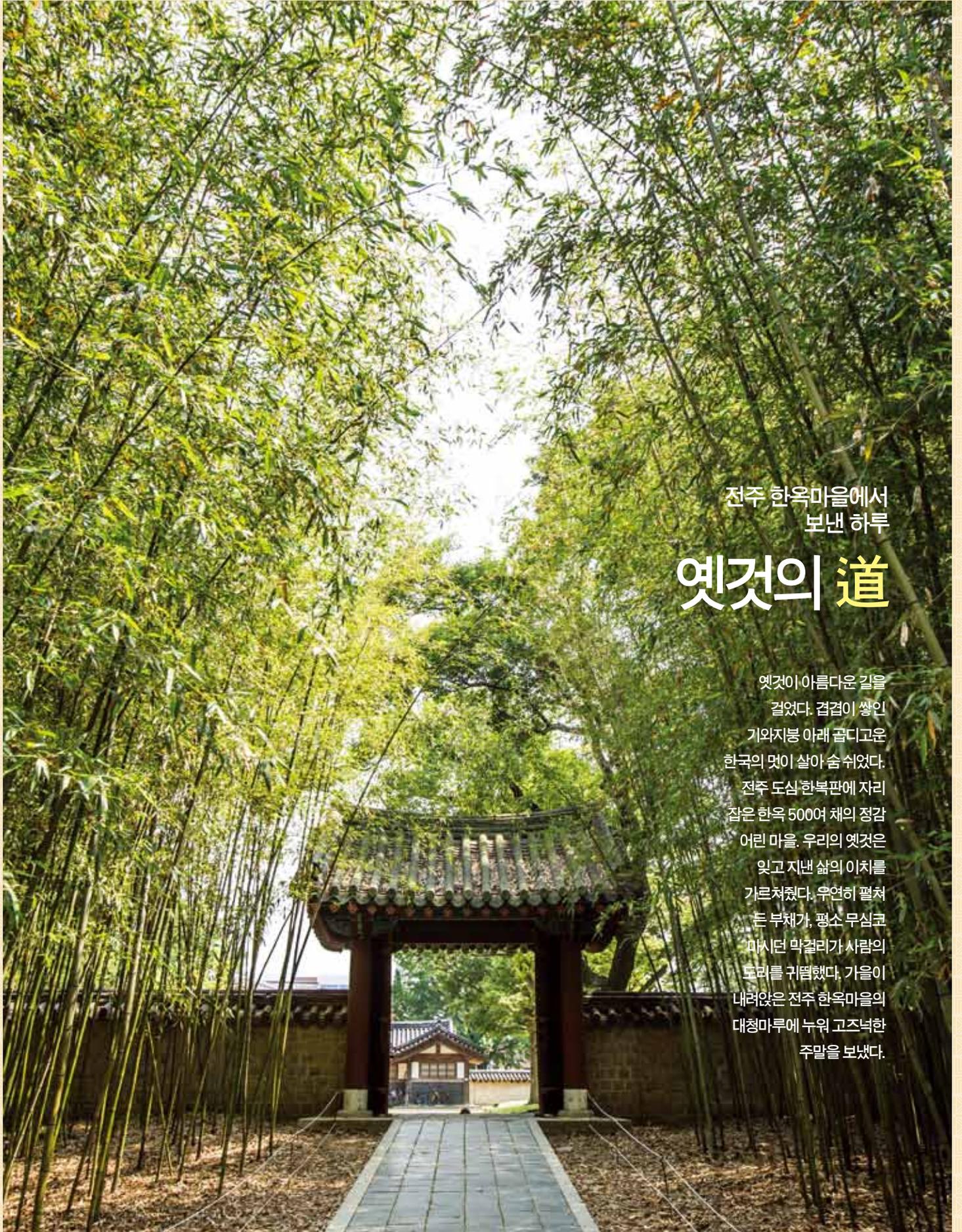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3 CULTURE & TRAVEL**
전주 한옥마을에서 보낸 하루
옛것의 道
- 07 SPECIAL**
움직이는 태국 여행
Move, Move, Thailand!
- 13 CITY THEME TOUR**
2박3일 휴가 프로젝트
Healing TAINAN vs. Tasty OSAKA
- 17 CITY THEME TOUR**
중국 미술의 중심
상하이 건축 & 아트 투어
- 21 TREND & ANALYSIS**
아웃도어 라이프, 캠핑의 재발견
Go Camping!
- 25 FESTIVAL CALENDAR**
- 27 TPO NEWS**
- 29 TPO INTERVIEW**
다토 파타히야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페낭 시장



전주 한옥마을에서
보낸 하루

옛것의 道

옛것이 아름다운 길을
걸었다. 곱겹이 쌓인
기와지붕 아래 굽디고운
한국의 멋이 살아 숨 쉬었다.
전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옥 500여 채의 정감
어린 마을. 우리의 옛것은
잊고 지낸 삶의 이치를
가르쳐줬다. 우연히 펼쳐
든 부채가, 평소 무심코
마시던 막걸리가 사람의
도리를 귀뜸했다. 가을이
내려앉은 전주 한옥마을의
대청마루에 누워 고즈넉한
주말을 보냈다.

1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관광안내소

한옥마을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관광안내소에 들러 알짜배기 정보를 입수하자. 각각 경기전, 오목대, 완판본문화관, 한옥마을주차장 부근에 자리하는데, 꼼꼼히 정리된 팸플릿과 지도를 얻을 수 있어 여행의 밑거름이 된다. 평일 14시, 주말 10·13·15시에 오목대 관광안내소로 가면 해설사와 함께 떠나는 한옥마을 정기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요일에 따라 1코스 문화시설과 2코스 전주향교로 나뉘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12:00

전통 아트 산책 공예 명품길

‘명품’이란 수식어답게 품질 좋은 수공예품이 거리에 가득하다. 좁은 골목 사이로 공방이 웅기증기 모여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길. 선이 고운

목공예품과 도자기를 비

롯해 아기자기한 닥종이 인형

과 감각적인 캘리그래피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공방마다 다채로운 체험 프

로그램도 진행해 직접 작품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부채, 팽이, 나무인형 등 손수

만든 기념품을 선물할 좋은 기회다.

찾아가는 법 오목대 관광안내소에서 경기전 방면으로 도보 약 2분



12:40

국수의 진수 베테랑 Veteran

1977년부터 전주 성심여고 앞에 자리 잡아 학생들의 출출한 배를 책임졌던 국숫집. 본래 김·들깨·고춧가루

를 소복이 올린 칼국수로 소문났지만 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콩국수도 좋다. 진한 콩국물에 미숫가루를 송송 뿌려 면발까지 부드럽게 넘어간다. 고소하기로는 칼국수 부럽지 않은 맛! 조금 허전하다면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만두를 주문할 것.

주소 전주시 완산구 교동 84-10 전화 063-285-9898 운영시간 08:30~21:30 가격 칼국수·쫄면 5000원, 콩국수·소바 6000원, 만두 4000원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와 함께하는 전주 한옥마을 즐기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를 관람하면 전주 한옥마을 여행이 더욱 알차진다. 입장권 한 장이면 국내 최고의 명창들이 참여하는 공연은 물론 7가지 전통 문화 중 1가지를 골라 무료로 체험하고, 푸짐한 잔치음식까지 맛보는

1석3조 혜택이 주어지는 것! 여기에 한옥 게스트하우스인 삼도현 숙박과 아침식사로 콩나물국밥이 추가된 1박2일 스페셜 패키지도 준비돼 있다. 이 공연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70분간 펼쳐진다.

기간은 10월 5일까지.

예약 문의 063-283-0223 가격 1일 입장권 2만 5000원, 1박2일 패키지 2인 커플 11만5000원, 4인 가족 18만 원



13:30

태조의 위엄 경기전 慶基殿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에서 위엄이 느껴진다. 경기전은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란 뜻으로 1410년인 태종 10년에 창건됐다. 당시 경주나 평양 등지에도 왕의 초상화를 모셨지만 임진왜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전주 경기전의 어진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고. 기품 있는 어진을 감상하며 녹음이 우거진 궁궐을 찬찬히 거닐어보자.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국가기록물을 보관한 전주사고와 전주이씨 시조인 이한공의 위패를 봉안한 조경묘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면, 매일 11·14·16시 경기전 정문에서 출발하는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된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전화 063-287-1330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9:00(매주 월요일 휴관, 6~8월은 20시, 11~2월은 18시까지)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15:30

한옥마을 대표 빙수 열전 외할머니 솜씨 vs. 사랑나무 카페

'외할머니 솜씨'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인기 좋은 빙수 맛집.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한낮에는 한참 기다리기도 한다. 옛날 방식대로 삶은 단팥과 고소한 검은깨가 어우러져 계속해서 손이 가게 하는 묘한 중독성을 갖고 있다. 반면, '사랑나무 카페'의 빙수는 입속으로 향긋하게 퍼지는 대추 향이 일품이다. 사각사각 얼음과 함께 씹히는 말린 대추가 쫄쫄한 찹쌀떡보다 훨씬 품미 있다. 사랑나무 카페는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띈다. 두 나무가 서로 만나 합쳐진 연리근이 위풍당당 자리하기 때문. 입맛에 따라 선호도야 달라지겠지만 옛날 팔빙수와 밤대추 팔빙수 모두 한옥마을을 대표한다고 말해도 손색없는 맛이다.

외할머니 솜씨 주소 전주시 완산구 교동 113-4 전화 063-232-5804 운영시간 12:00~22:00 가격 옛날팔빙수 6000원 사랑나무 카페 주소 전주시 완산구 교동 118-3 전화 063-288-0035 운영시간 월~목·일요일 10:00~23:00, 금·토요일 10:00~24:00 가격 밤대추팔빙수 6500원



14:50

거룩한 순교 성지 전통성당

영화 <약속>에서 주인공 박신양과 전도연이 안타까운 결혼식을 올린 장소가 바로 전통성당이다. 한국 천주교회 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순교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1914년 준공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으로 고풍스러우면서도 신성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힌다. 천주교 신자라면 미사에 직접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주일 미사는 아침 9시와 저녁 8시에 시작된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전동 200-1 전화 063-284-3222

17:00

내가 만든 한지 수첩 삼도헌 三到軒

옛 삶의 멋을 눈으로 즐기는 안도(眼到), 전주 인심을 맛보는 구도(口到), 추억을 마음에 새기는 심도(心到)의 3가지 도를 품은 '삼도헌'. 아늑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사랑받는 삼도헌에서는 1시간에 걸쳐 한지 수첩 만들기를 진행한다.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 아래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마룻바닥에 앉아 한지에 구멍을 뚫고 마름을 엮으면 나만의 한지 수첩 탄생! 한지 수첩은 부피가 커도 무게가 가벼운 게 장점이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42-5 전화 063-282-3337 가격 한지 수첩 만들기 7000원



19:00

전주 어머니 손맛 푸짐한 잔치음식 식사

오늘의 저녁식사는 전주 소리문화관에 푸짐하게 차려진 잔치음식이다. 토요일 저녁 7시부터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주 어머니들이 손수 만든 음식이 차려지는 것! 약밥, 수육, 묵, 떡, 수정과, 막걸리 등 준비한 음식을 뷔페처럼 그릇에 담아준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냄새와 구수한 막걸리 향기에 마음껏 취해보자.



20:00

유쾌한 심청전의 재림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심청전이 따분하고 지루할 거란 걱정은 100% 편견이다.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꽃중년'의 심봉사, 재치 만점 뽕덕어덤, 엉클한 황봉사, 눈물의 심청이가 어깨 들썩이는 신명 나는 무대를 선사한다! 한옥 야외무대의 대청문을 캔버스 삼아 애니메이션 영상이 은은하게 그려지면, 국내 대표 명창들의 소리 여행이 시작된다. 깨알 같은 콩트를 펼치던 소리꾼은 비트박스에 리듬을 맡기고, 차례차례 등장한 풍물패는 거침없이 비보이 댄스를 선보인다. 조선시대 맹인들이 한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패션 센스만 봐도 그 유쾌함이 엿보인다. '얼썩!' 하고 여기저기서 흥에 겨운 추임새가 터져 나올 정도다. 극이 절정에 이르러 심청과 심봉사가 재회하는 순간이 오면, 가슴 뜨거워지는 감동까지 느껴볼 수 있다.



21:30

고즈넉한 하룻밤 전주한옥생활체험관

한옥의 정취를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한옥에서 하룻밤 머물 일이다. 한옥마을 곳곳마다 한옥 형태의 게스트 하우스가 제법 많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전주한옥생활체험관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한옥을 복원해 2002년 문을 열었다. 사랑채, 안채, 행랑채, 대청 등으로 구성돼 규모도 큰 편. 객실은 총 9개로 필요한 물품만 구비해 거추장스러운 꾸밈 없이 수수하게 정돈됐다. 화~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화요일에는 연 만들기, 토요일에는 전통 제기 만들기 등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방식. 비용은 숙박객 3000원, 관람객 5000원이다.



주소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3가 33-4 전화 063-287-6300 숙박료 2인 기준 7만 원부터(1인당 1만 원 추가) 홈페이지 www.jhanok.com

움직이는 태국 여행

Move, Move, Thailand!

방콕 여행자가 움직였다. 심심할 틈 없는 방콕일지라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온다. 몸을 움직여 가까운 방콕 근교를 순례하니, 마음까지 동했다. 골목길 하나하나 구석구석 방랑한 여정은 미처 몰랐던 태국의 매력까지 살살이 흩어졌다. 잠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온몸이 근질근질한가. 그렇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상상만큼 다채로운 태국이 날것 그대로의 로드 무비를 선사할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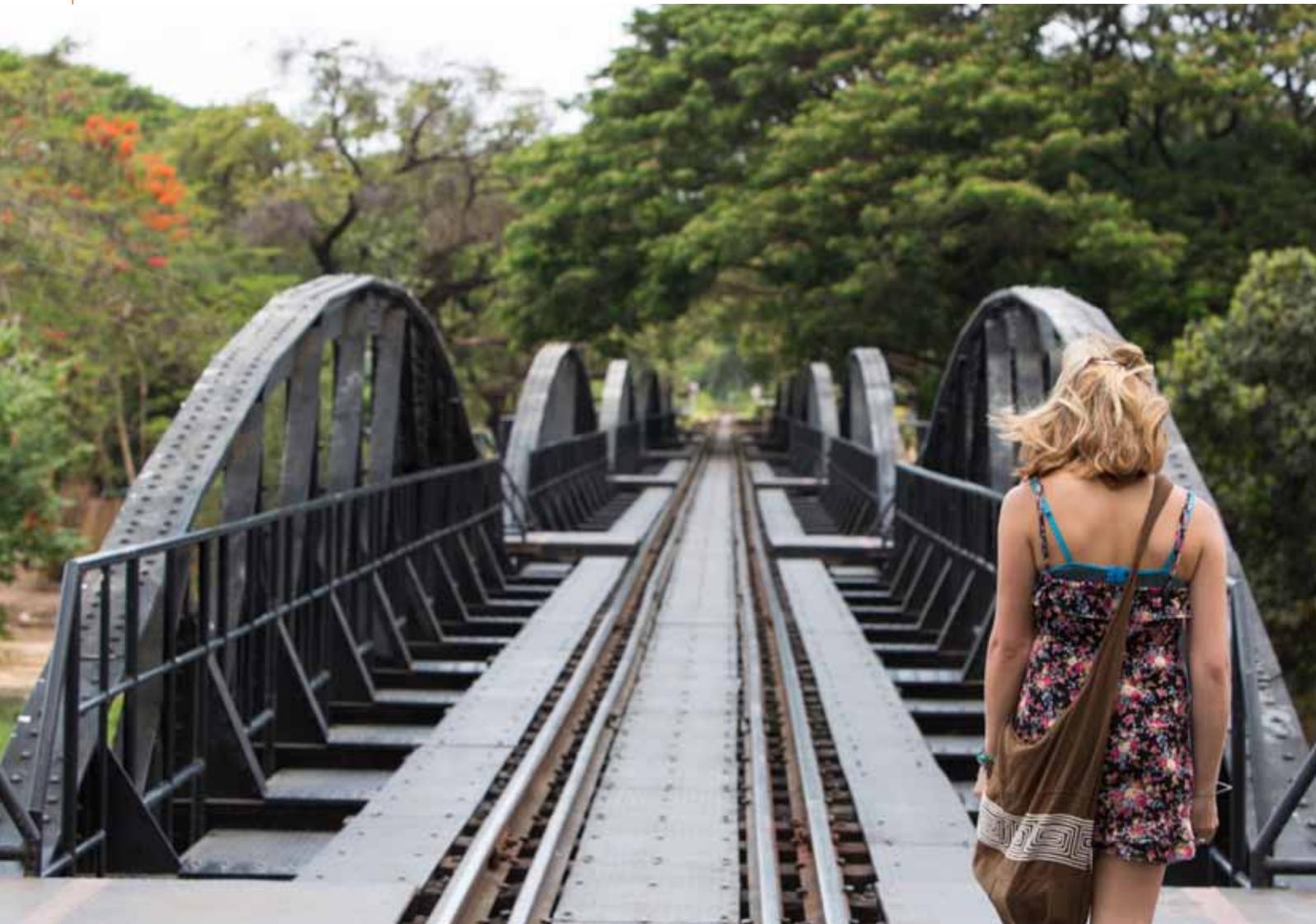


○ Bangkok Plus

방콕에서 떠난 여행

자유로운 영혼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몸과 마음에 보헤미안 스타일을 걸친 여행자는 시끌벅적한 거리에 한껏 취해 있었다. 서로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맥주잔을 부딪쳤고, 더욱 저렴한 쇼핑을 위해 단 10바트의 흥정이 오고 갔다. 세계 각국의 배낭여행자가 찾아든 방콕에서도 여전히 핫플레이스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는 카오산로드(Khaosan Road)의 풍경이다. 카오산로드만 가도 방콕은 충분히 반할 만했다. 하지만 방콕의 매력은 이제 시작이다. 태국 왕실의 위상을 대변한 번쩍이는 왕궁은 그 어느 곳보다 찬란했다. 합리적인 가격에 양손 가득 얻어가는 패션 아이템과 목힌 피로까지 살살 풀어주는 타이마사지는 여인들의 마음을 단숨에 빼앗았다. 그런 방콕의 매력은 한 번 찾아온 여행자를 두 번, 세 번 오게끔 만들었다. 꿈틀꿈틀 새롭게 샘솟는 여행의 욕심은 바로 이 시점에서 발생한다. 휴가를 쯤개고 쯤개 방콕으로 떠나온 단 며칠간의 여정이라도, 방콕에서의 시간을 양보해 방콕 근교까지 둘러보고픈 여행자의 정당한 욕심 말이다. 물론 그럼에도

메인은 방콕이다. 방콕이 달걀노른자요, 방콕의 근교가 달걀흰자인 셈. 방콕에서 한, 두 시간만 달리면 보다 한적한 마을들이 등장한다. 방콕에서의 답답한 교통 체증도 짜오프라야(Chao Phraya) 강을 건너기만 하면 시원하게 뚫렸다. 도로 한가운데를 물소가 떼 지어 건너가는 이색 풍경도 볼 수 있다. 안타까운 전쟁의 흔적을 간직한 칸차나부리(Kanchanaburi)에서는 방콕에 가려져 몰랐던 태국 역사의 단면을 들여다봤다. 평화로운 전원 풍경의 암파와(Amphawa)에서는 여유로움에 스며들었고, 소소한 상점들 덕분에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꼬끄렛(Ko Kret)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하룻밤 머물러도 손색없는 여행지다. 단,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지 여행을 통해 일일투어를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는 평. 시야를 넓힌 여행자의 새 루트는 탄력을 받는다. 노릇노릇 속이 짝찬 달걀처럼 알찬 일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번 여행의 출발점은 바로 방콕이다.



Remembering Bangkok

방콕 여행의 필수 매뉴얼 5



찬란한 왕궁 산책

방콕의 화려함은 어디보다 황금빛 왕궁에서 빛난다. 태국에서는 왕실의 위엄이 대단한데, 눈부신 그랜드 팰리스(Grand Palace)가 이를 증명한다. 18세기 라마 1세가 미얀마의 공격을 피해 왕궁을 툰부리(Thon Buri)에서 현재 위치인 라따나코신(Rattanakosin)으로 옮겨가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사방이 휘황찬란한 가운데 수많은 방문객으로 북벼 정신을 쏙 빼놓기 일쑤지만 그중에서도 에메랄드 불상으로 유명한 왕실 사원 왓 프라 깨우(Wat Phra Kaew)는 놓치지 말아야 할 스폿!



양손 두둑 쇼핑 천국

방콕만 오면 양손이 무겁다. 근래 가장 뜨고 있는 쇼핑 스폿은 수쿰빗(Sukhumvit) 19에 자리한 터미널 21(Terminal 21)과 짜오프라야 강변에 등장한 아시아티크(Asiatique)다. 터미널 21은 1층 도쿄, 2층 런던, 3층 이스탄불처럼 각 층마다 터미널 컨셉트로 꾸민 대형 쇼핑센터. 아시아티크는 10개 구역마다 작은 상점들이 가득 들어찬 쇼핑 빌리지다. 맛있는 레스토랑에 로맨틱한 관람차까지 겸비해 늦은 밤에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불심의 나라

태국은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불심의 나라다. 방콕의 사원들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방콕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원 왓 포(Wat Pho)에는 길이 46m, 높이 15m의 거대한 와불상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새벽사원'이란 별칭의 왓 아룬(Wat Arun)은 높이 104m로 라마 4세가 중국에서 선물 받은 도자기 조각을 섬세하게 장식한 게 특징이다. 해 질 녘에는 짜오프라야 강과 함께 석양을 머문 채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니, 이 또한 놓치지 말자.



피로를 푸는 마사지와 스파

타이마사지는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났다. 강약을 조절하는 부드러운 움직임에 길가의 마사지 가게에도 사람들이 가득하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시간과 프로그램에 따라 가격대도 다양해진다.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저렴한 덕분에 많은 이가 방콕에 머무는 동안 마사지를 여러 번 받는다고. 고급스럽고 모던한 스파 숭도 여럿이다.



화려한 나이트라이프

방콕의 밤은 쉽게 잠들지 않는다. 그들만의 자유분방한 나이트라이프를 경험하고 싶다면, 워니워니 해도 카오산로드(Khaosan Road)가 으뜸! 갖가지 노점상과 대형 스크린을 갖춘 퍼브(Pub)와 바(Bar)가 가득해 밤이면 수많은 여행자가 모여든다. 진정한 클럽bing(Clubbing)을 즐기고 싶다면, 트렌디한 클럽들이 모인 통러(Thonglor)와 에까마이(Ekkamai) 주변을 추천할 만하다. 데모(Demo), 펑키빌라(Funky Villa), 뮤즈(Muse), 농렌(Nung Len) 등이 인기 있는 클럽 리스트. DJ들의 수준 높은 뮤직 사운드 속에서 신나는 밤을 만끽해보자.

o Kanchanaburi

역사가 흘러간 소도시 간차나부리

간차나부리를 그저 조용한 대도시 옆 소도시라 말하기엔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간차나부리를 찾는 여행자 대부분은 전쟁박물관이나 유엔군 묘지에 둘러 전쟁의 아픔을 위로한다. 하지만 간차나부리는 어둡지 않다. 거친 산악 지형 속에 탄생한 수려한 폭포와 동굴 덕분에 자연의 즐거움 또한 느껴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방콕 남부터미널에서 간차나부리행 버스를 타고 2~3시간 소요



고개 숙인 인사 유엔군 묘지 Allied War Cemetery

푸릇푸릇한 잔디 위에 화려한 꽃들이 울려졌지만 분위기는 숙연하다. '죽음의 철도' 공사에서 사망한 전쟁포로 중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군인 6982명의 묘가 가지런히 자리 잡은 곳.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땅에 남아야만 했던 안타까운 군인들의 영혼을 모두가 위로한다. 유엔군 묘지는 썬싼 송크람 청카이(Susan Songkhram Chong Kai)와 썬싼 송크람 돈락(Susan Songkhram Don Rak) 2곳이 있다.

찾아가는 법 제스 전쟁박물관에서 도보로 5분 운영시간 08:00~18:00

전쟁의 산물 콰이 강의 다리 Bridge On The River Kwai

고전영화 중에서도 명작으로 손꼽히는 1957년작 <콰이 강의 다리>를 봤다면 낯설지 않을 장소다. '죽음의 철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본군, 영국군, 미국군의 전쟁 이야기를 다뤘기 때문. 영화에도 등장하는 콰이 강의 다리도 죽음의 철도 중 한 구간이다. 현재는 무지개색 관광용 기차가 사람들을 싣고 오가는 전형적인 관광지 모습이지만 역사를 알고 보면 감회가 새롭다. 다리 밑 강변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 숍이 준비하다.



기억할 아픔 제스 전쟁박물관 JEATH War Museum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로 사용됐던 대나무 오두막을 재연해 당시의 참혹함을 전달한다. 제스(JEATH)란 명칭은 철도 건설에 관련됐던 국가명(일본, 영국, 호주, 태국, 네덜란드)에서 첫 알파벳을 따서 지었다고. 그들이 실제 사용했던 여러 도구와 사진, 그림, 신문 기사 등을 전시해 당시의 생활상을 이야기한다.

다. 박물관의 규모는 작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큰, 의미 있는 장소다.

찾아가는 법 간차나부리 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15분 주소 Wat Chaichumpol Bantai Muang Kanchanaburi 전화 66-3-451-5203 운영시간 08:30~16:30 입장료 30바트

7단 폭포 에라완 국립공원 Erawan National Park

이번에는 간차나부리의 청정 자연을 느낄 차례. 에라완 국립공원은 150m 높이에서 일곱 계단을 걸쳐 쏟아지는 에라완 폭포로 유명하다. 마치 정글처럼 열대식물이 뽀뽀이 들어찬 길을 산책하다보면 폭포를 하나, 둘 만난다. 열대어가 노니는 깨끗한 물줄기는 절로 물놀이를 이끌기 마련! 많은 사람이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시원스레 수영을 즐긴다. 돛자리나 간단한 도시락 등 피크닉 준비물을 챙겨 오면 더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간차나부리에서 완행버스 8170번을 타고 약 1시간 40분 소요 주소 Mu 4 Tha Kradan Sub-district Amphur Si Sawat Kanchanaburi 71250 전화 66-3-457-4222 입장료 어른 200바트, 어린이 100바트



Amphawa

푸릇한 전원 풍경 암파와

잔잔히 흐르는 매끌롱(Mae Klong) 강 너머 수풀이 우거진 전원에서 소박한 사람 냄새가 풍겨온다. 부산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다고 해야 할까. 싸뭇송크람(Samut Songkhram) 주의 암파와 지역은 방콕 시민들도 휴식을 위해 찾는 푸릇한 마을이다. 홈스테이를 운영하는 가정집이나 게스트하우스는 물론 작은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가 곳곳에 자리해 며칠간 머물기에도 손색없다. 철도시장이나 수상시장 같은 이색적인 재미는 보너스 암파와 내에서 가까운 거리는 산책하며 걸어도 좋지만 무더운 날에는 뚝뚝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찾아가는 법 방콕 남부터미널에서 암파와행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소요



변신 마켓

매끌롱 철도시장 Mae Klong Train Market

기차가 시장 한복판을 가로질러 달린다! 1905년부터 형성된 매끌롱 철도시장은 철길 위에 장터를 잡았다. 과일, 채소, 생선, 고기, 생필품 등 가판이 어지럽게 열리고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은 어느 시장 풍경과 비슷하다. 하지만 기차가 온다는 경쾌한 기적 소리만 들리면 천막이 '척척척' 빠르게 걷히면서 기차가 철길을 느릿느릿 지나간다. 기차가 떠나고 나면 상인들은 또다시 천막을 펼쳐 물건들을 정돈한다. 낯선 여행자에게는 다소 위험해 보이면서도 신기한 광경이지만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 같은 풍경이랄까. 6시, 9시, 12시, 15시, 18시로 하루에 5번 운행되는 기차는 역에서 30분간 정차한 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니 기차 시간을 미리 체크해두자.



노릇노릇 오징어와 새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금요일 저녁부터 문을 여는 암파와 수상시장은 주말이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발 디딜 틈이 없다. 매끌롱 강 사이로 나룻배가 등등 떠다니며 맛있는 음식들을 판매하면, 바로 옆 계단에 앉아 시식한다. 강 양편에는 수로를 따라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웅기종기 모여 구경하는 재미를 넘어 쇼핑 욕구를 자극한다. 투어용 보트를 타고 매끌롱 강을 시원하게 가로지를 수도 있고, 해 진 저녁에는 보트를 타고 반딧불이를 찾아 떠나는 반딧불이 투어도 진행한다. 반딧불이가 나무에 몰려와 깜빡이는 덕분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애칭이 있다고. 정겹고 활기찬 암파와 수상시장에서라면 반나절도 짧게 느껴진다.

정겨운 시장 탐험

암파와 수상시장 Amphawa Floating Market

보리수의 보호 왓방궁 Wat Bang Kung

보리수나무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은 사원. 자연 발생적으로 뿔어나간 나무줄기가 사원을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태국 아유타야(Ayutthaya) 시대에 미얀마의 침공을 막기 위해 사원 주변에 군대가 주둔했는데, 미얀마에 패한 후 사원은 폐허가 되었다가 200년 후 재건됐다. 그런데 그 폐허 속에 본당이 보리수나무에 의지한 채 남아 있었다고. 보리수나무가 없었다면 본당도 무너졌을 거라는 게 주된 의견이다. 향 냄새를 맡으며 문에 들어서면 아담한 공간에 자리 잡은 커다란 금빛 불상을 볼 수 있다.



○ Ko Kret

섬 아닌 섬 꼬끄렛

본래 섬이 아니었지만
짜오프라야 강변으로 물길을
내면서 섬이 된 방콕 북부
논타부리 (Nonthaburi) 주의
꼬끄렛. 중국의 소수민족인
몽(Mon)족이 이곳에 살아
그들의 흔적이 많다. 섬에
도착하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양편에 상점들이 쪽 늘어서
있다. 입맛을 자극하는 길거리
음식, 가지각색 기념품, 크고
작은 사원 등 구경하는 재미가
쏟아진다. 천천히 걸어
2시간이면 섬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방콕에서 32번 일반버스나 506번 에
어컨버스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소요. 또는 수상버
스를 타고 논타부리 선착장 하차 후 미니버스 이용



수공예 커뮤니티 바틱 패브릭 하우스 Batik Fabric House

꼬끄렛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모아 판
매하는 곳. 더불어 마을 여인들이 삼삼오
오 모여 수공예 작업에 관한 강의를 듣
기도 한다. 꼬끄렛의 주민 커뮤니티인
섬. 짜임새 있는 바구니, 패브릭으로 만
든 지갑이나 스카프, 화사한 인테리어 소
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소원을 말해봐

왓 빠라마이 이까왓 Wat Paramai Yikawat

아유타야 왕조 후기의 역사를 전하
는 몽족 스타일의 사원. 한쪽에는
꼬끄렛에서 발견된 전통 토기와 유
물들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하지
만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사원
앞에 자리 잡은 보리수다. 빨강, 노
랑, 초록 띠에 이름을 적고 매달아
소원을 비는데, 이미 띠가 한가득 매
달려 있는 모습. 태국 사람들은 대개
장수를 위한 소원을 빈다.



유서 깊은 사원

왓 파이 롬 Wat Phai Lom

태국 아유타야(Ayuthaya) 왕조
말, 1700년대 지어진 오래된 사
원. 황금빛 장식의 반짝이는 왓
파이 롬은 스님들이 참회식과
수계 의식을 거행하는 우보솓
(Ubosoth)이 아름답기로 이름
났다. 우보솓 앞에는 몽족들이
피아 또(Phia Toh)라 부르는 2
개의 작은 불탑이 서 있고, 사원
곳곳에는 개성 만점 불상이 여
럿 자리한다.

도자기 굽는 장인

포터리 빌리지 Pottery Village

꼬끄렛만의 기념품을 꼽으라면, 도
자기가 단연 1순위다. 꼬끄렛에 모
여 사는 몽족은 도자기 만드는 솜씨
가 훌륭하기로 소문났다. 손수 섬세
한 문양을 그리고 있는 장인을 만나
거나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 솔솔 구
워지는 도자기의 탄생 과정도 엿볼
수 있다.



달콤한 세상

홈메이드 디저트 Homemade Dessert

달걀을 풀어서 기름에 튀긴 후
설탕을 묻힌 노릇한 과자부터 코
코넛으로 만든 달달한 젤리, 쫄득
한 밥을 떡처럼 잘라놓은 라이스
등 가지각색이다. 일반 상점보다
가격이 꽤 저렴하다는 평. 음료
를 마시며 공장 디저트를 맛볼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이 마련됐다.





2박3일 휴가 프로젝트

Healing TAINAN vs. Tasty OSAKA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바쁜 일상 탓에 장거리 해외여행은 그림의 떡인 예비 여행자를 위해 준비했다. 주말을 이용해 짧고 굵게 떠나는 2박3일 휴가 프로젝트.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개성의 두 도시, 타이난과 오사카 비교 분석.



VS.



Plan for Travel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몸과 마음에 활기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타이난으로 힐링 여행을, 복잡복잡 사람 사는 분위기 만끽하며 맛있는 음식 실컷 맛보는 호사를 꿈꾼다면 오사카로 미식 기행을 떠나보자. 님은 듯 다른 두 도시가 짧지만 알찬 여행의 재미를 200% 충족해줄 테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타이난 힐링 여행

타이난(Tainan, 臺南)은 차이나니스 타이베이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골목 어귀마다 자리한 사원과 10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건물들이 옛 노래만큼 정겹고, 꾸밈없이 소탈하다. 복잡한 머릿속을 차분하게 정리해줄 푸른 자연과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따끈한 온천수까지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루트가 여행자를 기다리고 있다.

- 1DAY** 오전 한국 출발, 타이베이 도착 후 타이난으로 이동.
오후 타이난의 핫 플레이스, 신농거리 둘러보기. 용기종기 모인 일반 가정집 사이사이에 자리한 수공예품 가게와 화랑을 둘러보고, 100년 넘은 가옥에 자리잡은 아늑한 바, **태고**에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 보내기.
- 2DAY** 오전 타이난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관쓰링 온천지역**에서 뜨끈뜨끈한 온천욕으로 심신의 피로 풀기.
오후 녹색 나무가 고요한 터널을 이룬 **홍수림 녹색터널** 산책. 보트를 타고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낭만 체험. 해 질 무렵에는 타이난에서 가장 오래된 염전인 **정자각와 반염전**에서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 감상.
- 3DAY** 오전 1000개의 사원이 자리하고 있어 '천묘(千廟)의 성'이라는 별칭까지 갖고 있는 타이난 체험. 외로운 솔로라면 **대관음정**에 들러 홍색 천의 실을 뽑으며 사랑을 기원하고, 직장 상사와의 불화 탓에 머리가 아프다면 중경사에서 산돌을 돌리며 원만한 해결을 빌어볼 것!
오후 타이난에서 타이베이로 이동. 타이베이 출발, 한국 도착.

뜯고, 씹고, 맛보는 오사카 미식 기행

일본에서도 맛있는 동네로 손꼽히는 곳이 오사카다. 오코노미야키, 회전초밥, 샤브샤브, 오므라이스, 우동전골 등 오사카가 원조인 음식이 넘쳐난다. 그뿐 아니다. 오사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라멘, 게 요리, 북어 요리도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주인공. 가던 걸음을 자꾸 멈추게 하는 각양각색 거리 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끝을 파악할 수 없는 오사카 미식 퍼레이드에 몸을 맡기고, 맛의 향연에 빠져들어보자.

- 1DAY** 오전 한국 출발, 오사카 도착.
오후 간사이 공항에서 직행으로 도착하는 난바 역 주변을 둘러본 후 도톤보리(道頓堀)에 들러 화려하고 개성 가득한 식당가 구경하며 길거리 음식 맛보기. 드럭스토어와 돈키호테에서 기념품과 생필품 쇼핑 후 커다란 녹색 용이 반기는 식당 **긴류**에서 일본 라멘으로 저녁식사.
- 2DAY** 오전 신사이바시(心齋橋)에 위치한 카페에서 브런치로 아침식사. 주말이면 각종 퍼포먼스와 프리마켓이 열리는 아메리카무라(アメリカ村) 지역까지 둘러본 뒤 '오사카 오므라이스계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훗쿄쿠세이** 오므라이스 맛보기.
오후 오사카 서민들의 일상을 만날 수 있는 신세카이(新世界) 산책. 먹거리 가득한 아케이드 **잔잔오코초**에서 다코야키와 구시카쓰 등 일본 대표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오코노미야키로 저녁식사.
- 3DAY** 오전 우메다 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나카사키조(中崎)에서 카페 산책. 일본 특유의 수준급 뷔페를 맛볼 수 있는 **올림피아**에서 점심식사 후 우메다 역 주변 쇼핑이 둘러보기.
오후 오사카 출발, 한국 도착.

Inside
TAINAN
몸과 마음을 달래줄
타이난
힐링 스폿 5

분위기의 진수 태고 Taikoo, 太古

100년 넘는 건물이 멋들어진 바로 변신했다. 태고는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맥주, 보드카, 하우스 와인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아늑하면서도 조용한 분위기에 한껏 취하는 기분이다. 바로 앞길 건너 자리한 2호점은 1호점과는 다르게 달콤한 케이크와 더불어 따뜻한 커피, 차를 맛보는 카페.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이다.

1호점 주소 台南市中西區神農街94號 **전화** 886-6-221-1053 **운영시간** 월~목 18:00~02:00, 금요일 18:00~03:00, 토·일요일 16:00~03:00 **가격** 보드카·럼·진 200~300뉴타이완달러 **2호점 주소** 台南市中西區神農街101號 **전화** 886-6-221-7800 **운영시간** 월~목요일 13:00~22:30, 금요일 12:00~01:00, 토·일요일 12:00~22:30



외로운 솔로를 위해 대관음정 大觀音亭

17세기 타이난 최초 자비를 덕으로 믿는 관음(觀音)을 모신 사원이다. 주신인 관음 옆에 미혼 남녀의 연분을 관장하는 월하노인을 모시는데, 큰 입의 달변가로 허리춤에 '백년해로(百年偕老)', '이성합혼(二姓合婚)'이라고 쓰인 띠를 매고 있다. 외로운 솔로들이 기도를 올린 뒤, 월하노인이 두른 홍색 천의 실을 뽑아 간직하면 인연을 찾아준다는 전설. 타율이 가장 높은 신으로 인기가 좋다.

주소 台南市成功路86 **전화** 886-6-228-6720 **운영시간** 07:00~21:00 **홈페이지** www.da-shing.org.tw



진흙의 효능 관쯔링온천 關子嶺溫泉

타이난에서 차로 1시간 30여 분을 달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천 지인 관쯔링온천 지역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세계에서 세 곳밖에 없다는 진흙 온천. 몸에 좋은 온천수가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를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준다. 산비탈을 따라서 다양한 온천 호텔이 늘어서 있으므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 숙박하자.

찾아가는 법 타이난 기차역에서 싱잉(Xinging)까지 기차로 이동, 버스로 환승 후 관쯔링 역에서 하차

환상의 소금 노을 정자각와반염전 Jingzaijiao Tile-paved Salt Fields, 井仔腳瓦盤鹽田

타이난에서 가장 오래된 염전. 과거 염전 바닥에 타일을 깔아 태양열을 잘 흡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천일염을 생산했다. 지금은 남서부 해안 지역의 관광 염전으로 남아 있지만, 방문객은 옛날 방법대로 직접 고무래를 밀며 소금을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염전의 새하얀 소금에 반사돼 만들어지는 해넘이 풍경은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 날씨가 맑으면 맑을수록 더욱 선명한 색감을 자아낸다.

찾아가는 법 타이난 기차역에서 지알리(Jiali)선 싱난(Xingnan) 버스를 타고 베이멘(Beimen)역에서 하차 **주소** 台南市北門區永華里井仔腳 **전화** 886-6-786-1629



고요한 숲 홍수림 녹색터널 紅樹林綠色隧道

머리 위로 우거진 나무가 고요한 터널을 이룬다. 숲을 이루는 정체는 홍수림(紅樹林) 또는 맹그로브(Mangrove)라 부르는 태생식물. 타이완에서 지정한 보호수종의 하나로,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갯벌 하구에서 자라 뿌리로 숨을 쉰다. 가이드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30분간 홍수림을 관찰하는데,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달린 채로 썩어 터서 물속으로 줄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자라난 독특한 경관이 일품이다. 숲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맑은 느낌의 녹색터널이 꽤 낭만적이다.

주소 台南市安南區四草里大眾路360號 **전화** 886-6-284-1610 **운영시간** 08:00~16:30 **가격** 성인 150뉴타이완달러



Inside
OSAKA

미각을 자극해줄
오사카
맛집 4

콜라 먹는 재미 **올림피아** オリンピック

일식과 중식, 양식 등 110가지 요리를 무제한 맛볼 수 있는 뷔페. 대부분 음식이 기본 이상이다. 특히 일식은 이곳의 하이라이트. 스시와 소고기 스테이크, 메밀과 튀김 등이 정갈하고 먹음직스럽게 준비되는데, 정통 일식집에서 먹는 맛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다. 딸기 무스, 각종 케이크 등을 깔끔하게 갖춘 디저트 코너와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연출 퍼포먼스도 인기가.



주소 大阪府大阪市北区芝田1-1-35地下1階 전화 81-6-6372-5240 홈페이지 www.hankyu-hotel.com/hotel/osakashh



맛있는 거리 **잔잔요코초** ジャンジャン

고소한 기름 향이 후각을 자극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 모양이 군침 돌게 하는 곳. 신사케이의 중앙으로 가기 위해 거처게 되는 아케이드, 잔잔요코초에는 가던 걸음을 자꾸만 멈추게 하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하다. 구시카쓰, 오코노미야키, 다코야키 등 저렴한 오사카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서민적인 정취로 딱 차 있어서 사람 구경하며 이것저것 일본의 맛을 경험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도심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니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들러 맛있고 저렴한 식사를 경험해보자.

찾아가는 법 지하철 도부쓰엔마에(動物園前)역에서 하차



오므라이스계의 큰형님 **훗쿄쿠세이** 北極星

오사카 오므라이스의 원조. 1925년 오므라이스를 처음으로 만들어 상표로 등록한 주인공이다. '오므라이스계의 살아 있는 역사'로 불리는 훗쿄쿠세이에는 특유의 오므라이스를 맛보려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새통을 이룬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게 퍼지는 특유의 소스 맛이 꽤 중독성 있다. 오므라이스, 햄버거, 스테이크, 샐러드, 음료를 풀코스료 맛볼 수 있는 런치 세트가 경제적이다.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区西心斎橋2-7-27 전화 81-6-6211-7829 홈페이지 http://hokkyokusei.jp

일본 라멘의 맛 **킨류** 金龍

입구에서부터 녹색의 커다란 용이 반긴다. 안을 들여다보면 신발을 벗고 평상에 앉아 머리를 맞대 채 후루룩 면발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겹다. 서민적인 일본 라멘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킨류의 메뉴는 일반 라멘과 차슈를 추가한 차슈면 단 두 가지. 느끼한 맛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국물이 깔끔하고 담백해 한국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 자판기에서 직접 식권을 뽑아 카운터에서 주문해야 한다.

주소 大阪府大阪市中央区道頓堀1-7-26 전화 81-6-6211-3999



오사카 길거리 음식 열전

작은 오코노미야키 **가베센** キャベせん

오코노미야키의 축소판. 양배추를 듬뿍 넣어 만드는데, 크기가 작아 간식으로 그만이다. 흔히들 'B급 구루메(Gourmet)'라 한다.



문어의 변신 **다코야키** たこ焼き

일본 거리 음식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다코야키. 아이즈야(津屋)의 원조 다코야키는 소스 없이 그대로 먹어도 완벽한 맛의 균형과 잇을 수 없는 식감이 일품! 한입 맛 보고 반해버렸다.

꼬치 튀김의 정석 **구시카쓰** くしカツ

꼬치 요리 다양한 일본에서도 특히 인기 많은 음식. 잘게 썬 돼지고기와 파를 번갈아 끼우고, 사이사이 빵가루를 묻혀 튀겨낸다.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튀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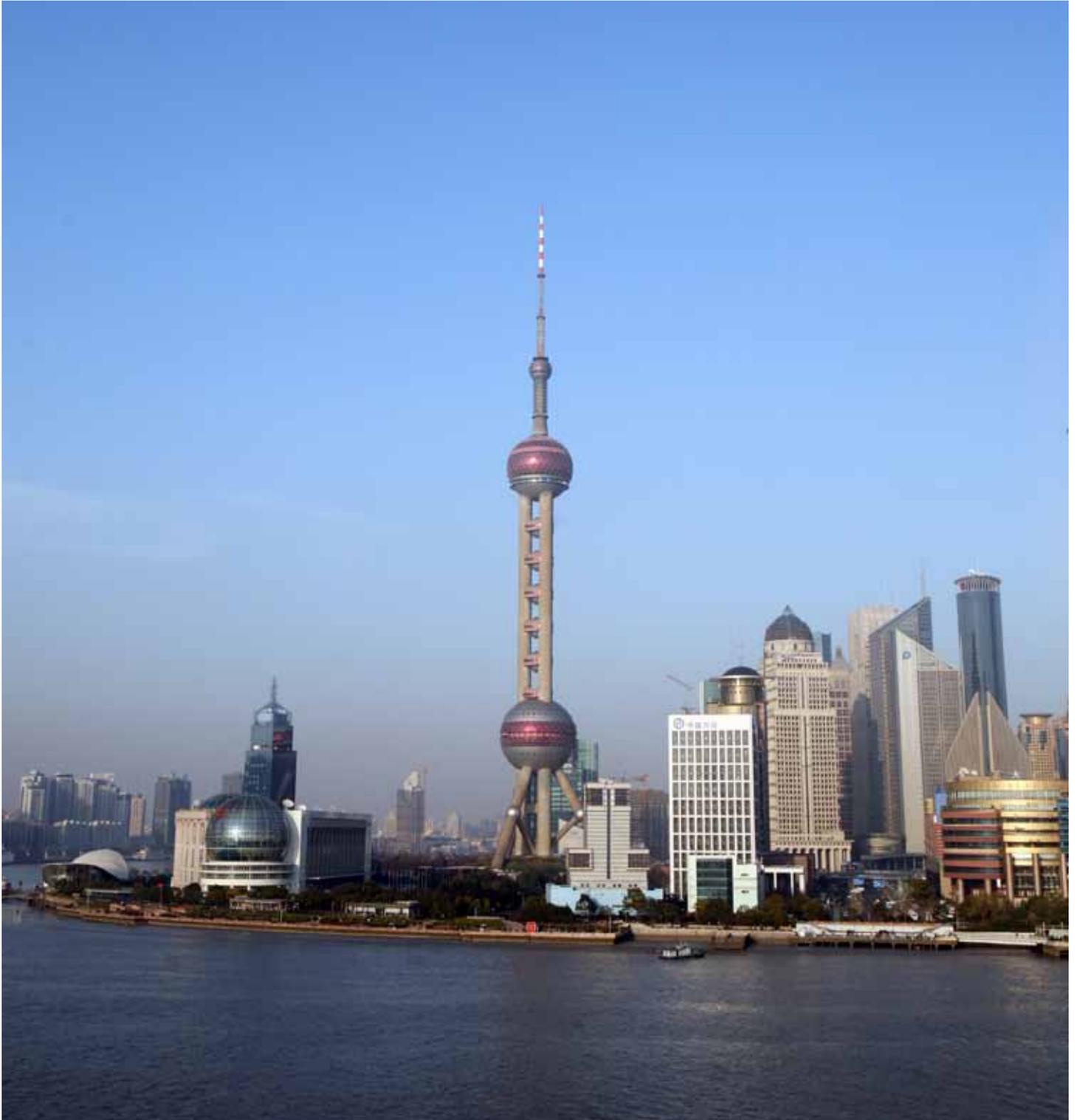
이것이 원조! **고로케** コロケ

고로케는 '다 거기서 거기'일 거란 생각을 단번에 날려준 주인공. 덴진바시에서 만난 8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감자 고로케를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부드러운 육과 바삭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신세계를 만났다.

중국 미술의 중심

상하이 건축 & 아트 투어

상하이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서 늘 매력적이고 새로운 여행지다. 도시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없이 많은 볼거리를 내놓는다. 갖가지 형식으로 삐죽 솟은 마천루, 전 세계에서 모인 아티스트들에 의해 다양한 빛을 발하는 거리 등 예기치 않은 즐거움이 곳곳에 가득하다. 이제는 중국 미술의 중심으로 우뚝 선 상하이의 매력에 흠뻑 빠질 차례다.





예술이 스며든 메트로폴리탄

상하이에는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더욱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웅장해졌다. 황무지였던 땅은 수많은 마천루가 뿔뿔하게 솟아 '건물의 숲'으로 변모했다. 황푸 강변에 늘어선 조계지 건물을 마주하면 다양한 건축양식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외관은 대부분 그리스 양식인데 서양 열강의 힘을 과시하듯 본국의 것보다 훨씬 멋지게 지어졌다. 1920년대까지는 당시 영국에서 유행하던 신고전주의 양식에 따라 신축된 건물이 많았지만, 1930년대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근대적 스타일의 고층 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와이탄이다. 그리스 신전이 연상되는 널찍한 계단과 조각으로 장식한 외관, 아르데코 양식이 돋보이는 내부 등 상하이의 와이탄은 세계 건축 박람회장과도 같다. 특히 화려한 조명으로 뒤덮이는 밤은 상하이 야경의 하이라이트다.

약 1.5km에 걸쳐 강변에 늘어선 건축물을 감상하면서 느긋하게 산책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상하이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이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예술가 각자의 헌신적 노력이 합쳐져 거대한 갤러리 지구를 만들기도 했다. 상하이 예술의 중심인 모간산루 50번지는 예술 특구로 10년째 명성을 쭉 이어가고 있다. 각국에서 모인 예술가들은 척박한 땅을 개척해 살아가는 원주민처럼 밤낮으로 작업에 몰두한다. 실제 작업실과 함께 운영되는 갤러리를 둘러보며 그들의 작업 공간과 작품을 자유롭게 구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하이는 침단을 넘어서 예술이 스며든 메트로폴리탄의 새로운 대명사가 됐다. 동방의 파리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Hot Spot:

Shanghai's Building

중국인의 출입마저 경계했던 오만한 세력은 사라지고,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관광지가 됐다. 상하이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대표 건축물을 소개한다.

동양의 진주 동방명주 Oriental Pearl Tower

상하이의 랜드마크인 동방명주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둥근 모양 때문에 동양의 진주라고 불린다. 높이 470여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방송관제탑이다. 1994년 완공됐으며, 350m 높이에 태공선이라는 회전형 전망대가 있어 상하이 시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11개의 크고 작은 구상(球狀) 건물들을 서로 높이를 달리해 엇갈려놓았다. 밤을 밝히는 조명이 무척 아름다우며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푸둥의 야경은 가히 환상적이다.

찾아가는 법 루자쭈이 역 1번 출구로 나와 인칭베이루(银城北路)를 따라 도보로 3분 홈페이지 www.opg.cn



영국적 네오클래식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 앤드 리조트 Waldorf Astoria Hotel & Resort

1910년에 완공된 영국 네오클래식 양식의 건축물로 과거 영국인의 사교 클럽이었다. 현재 힐튼 그룹의 럭셔리 브랜드 호텔인 발도르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탈바꿈했지만, 과거의 명성이 이어져 여전히 '상하이 클럽(Shanghai Club) 빌딩'이라고 불린다. 시칠리아에서 공수해온 대리석을 1층 로비와 계단에 사용했을 만큼 화려하고 호사로운 장식과 규모로 사교계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2층에 있는 '롱바(Long Bar)'는 건축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바(Bar)로 30m가 훌쩍 넘었다.

위치 번드 2번지 홈페이지 www.waldorfastoriaglobalmediacenter.com



럭셔리를 마주하다 더 스리 온 더 번드 The Three on the Bund

더 스리 온 더 번드는 와이탄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다. 이 포스트 르네상스 스타일의 7층 건물은 1916년 건립 당시 강철 프레임 구조(쿠폴라)를 활용한 최초의 건축물이었다. 현재는 아르마니 플래그십 스토어(Armani Flagship Store), 에비앙 스파(The Evian Spa by Three), 상하이 갤러리 오브 아트(The Shanghai Gallery of Art), 그리고 4개의 최고급 레스토랑인 래리스(Laris), 완포아 클럽(Whampoa Club), 장조지(Jean Georges), 뉴하이츠(New Heights)가 자리한 복합 부티크 건물로 탈바꿈했다.

위치 번드 3번지 홈페이지 www.threeonthebund.com



황푸 강변의 미학

상하이 푸둥 발전은행 Shanghai Pudong Development Bank

1923년에 설립된 건축물로 이 시대의 상징이자, 황푸 강변의 네오클래시즘 건축물 중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완공 당시의 용도는 홍콩상하이은행(The HSBC Building)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은행 건물이었다. 영국 건축가 파머&터너(Palmer & Turner)가 설계한 것으로, 네오-고전주의 양식을 따랐다. 돔 모자이크와 사자상이 이 건축물의 특징이다. 위치 번드 12번지

Art:

Pump your Creativity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모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그들의 열정을 들여다보니 우리 가슴속에 숨어 있던 예술적 감성이 꿈틀대는 듯하다.

뉴욕엔 모마, 상하이엔 모카 상하이당다이아수관(상하이 현대미술관) MoCA

런민공위안(人民公園)의 중국다운 분위기 속을 걸어가다보면 거대한 유리 조형물 같은 건물이 등장한다. 간판 하나 없는 이곳은 늘 새로운 전시와 기발한 기획으로 상하이 예술 애호가들의 심장을 벌렁이게 하는 상하이 현대미술관이다. 차이나스 타이베이 사업가 사무엘 쿡(Samuel Kung) 개인의 자본으로 세워진 비영리 미술관으로도 유명하다. 현대 예술에 목마른 사람이라면 양껏 목을 축이고 영혼의 양식까지 얻어갈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소 上海南京西路231号人民公園200003 전화 021-6327-9900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8:00(매주 수요일은 20시까지 오픈, 전시에 따라 오픈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입장료 성인 20위안, 학생 10위안(학생증 제시)



현대미술의 거리 모간산루 50번지 M50

먼저 풀력이던 방직공장이 2002년 상하이 예술특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모간산루 50번지를 줄여 이름 지은 M50은 세계 각국에서 온 아티스트와 단체들이 모여 만든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 지구다. 무엇보다도 중국 신예 작가들이 펼치는 현대 예술의 강렬한 기운이 느껴진다. 거의 모든 갤러리가 실제 작업실과 함께 운영되는데, 그들의 작업 공간과 작품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다.

찾아가는 법 상하이 기차역에서 택시로 5분



디자인을 사랑한다면 홍팡 Red Town 红坊

한자를 아티스틱하게 변형시킨 빨간색 로고가 홍팡의 입구를 알린다. 그 안으로 갤러리들이 각각의 독특함을 뽐내며 즐지어 있다. 이곳은 M50처럼 삭막한 공장 지대를 널찍한 아티스트들의 작업장으로 변모시켰다. 예술가의 작업 공간 성격이 강한 M50과 달

리 홍팡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갤러리 외에도 예쁜 소품을 판매하는 아트 숍, 디자인 서적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나 북 카페 등이 자리하고 있어 쇼핑을 하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에도 그만이다.

주소 上海市长宁区淮海西路570号(近虹桥路) 홈페이지 www.redtown570.com



룽탕의 변신은 무죄 타이강루 티엔즈팡 泰康路 田子坊

1930년대 타이강루는 삭막한 룽탕 공장 지대였다. 1999년 중국의 유명한 현대미술가이자 사업가인 천이페이(陳逸飛)가 이곳에 아틀리에를 열면서 예술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점점 예술지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중국 서민들이 모여 이뤄진 골목 형태의 전통 가옥촌을 뜻하는 룽탕 자체도 진귀한 볼거리인데, 그 안에 갤러리까지 더해져 더욱 매력적인 장소다. 요즘 상하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핫 스폿 중 하나!

찾아가는 법 산시난루 역에서 내려 택시 이용 주소 上海市泰康路210弄

아웃도어 라이프, 캠핑의 재발견

Go Camping!

캠핑이 대세다. 배낭에 장비를 짊어지고 다니던 수고를 벗어나 한걸음 진일보했다. 아직까지 캠핑은 서양의 문화라고 여겨지지만 최근 들어 아시아에서도 레저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글램핑, 오토캠핑, 백패킹까지. 시작에 불과하지만 높아진 눈높이만큼 발전을 거듭한 캠핑 트렌드가 시선을 끈다. TPO 회원 도시에서 취향대로 골라 떠나는 맞춤형 캠핑을 소개한다.



최근 몇 년간 캠핑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유럽과 북미에서 불던 바람이 아시아까지 불어와 캠핑 문화를 점차 확산시켰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텐트를 챙겨 산과 바다로 떠난다. 아직도 캠핑을 텐트와 코펠을 짊어지고 떠나는 야영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야외에서 잠자는 수준을 넘어서 휴식을 취하는 단계로 진화했고, 캠핑 장비도 발전을 거듭하며 더욱 경량화됐기 때문이다. 캠핑에도 트렌드가 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오토캠핑이 한동안 붐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호화롭고 편한 글램핑과 최소한의 장비만 들고 떠나는 백패킹이 부상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동경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캠핑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몸만 훌쩍 떠나는 글램핑

글램핑은 럭셔리와 캠핑을 접목한 캠핑 스타일을 의미한다. '화려한 야영'이라는 뜻처럼 캠핑에 관한 도구에서부터 음식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캠핑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글램핑은 가이드와 함께하거나 혼자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를 같이 운영한다. 호텔에서 이동 차량은 물론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더없이 편하고 안락한 휴식을 누리기에 그만이다. 자연 속에서 액티비티를 체험하고 요리사가 직접 만들어주는 바비큐를 즐기며 호텔에서 마무리하는 하루는 캠핑을 더욱 즐겁게 한다. 아직 유럽과 미주 쪽에 더 많이 보급된 스타일이지만 슬슬 아시아에도 글램핑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벗고 호화로운 공간에서 광활한 대자연의 품속을 누비는 꿈이 실현되는 글램핑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방콕 안에는 작은 섬이 있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여의도 같은 곳인데, 마지막 남은 자연 여행지로 통한다. 방끄라차오(Bang Krachao)에 위치한 트리하우스(Tree House)는 밀림 속 정글을 연상케 한다. 맹그로브 숲과 커다란 코코넛 나무가 지천에 널려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모든 시설은 자연친화적이다. 태양열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객실에는

일회용 제품마저 찾아볼 수 없다. 자연에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상의 환대로 투숙객을 유혹하는 곳에서 보내는 하루는 두고두고 잊히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너처 스파 빌리지(Nurture Spa Village)도 글램핑 명소로 제격이다. 따가이파이(Tagaytay)에 위치한 이곳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안한 휴식을 보장한다. 매일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며 스파는 물론 피트니스, BBQ 파티까지 준비돼 있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안락함을 누리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중국도 빠지지 않는다. 하이난 섬 쑤야에 있는 난산 트리하우스 리조트 앤드 비치 클럽(Nanshan Treehouse Resort and Beach Club)이 대표적이다. 동화 속에 나올법한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나무 위에 집이 지어져 있다는 점에 있다. 열대 과일인 타마린드 나무 숲 위에 다소곳하게 자리잡은 형태로 설계됐다. 나무 다리를 건너야 숙소에 도달할 수 있어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해변 근처에 위치해 주변 절경도 기가 막히다. 다른 어떤 글램핑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토캠핑

자동차를 뜻하는 오토(Auto)와 야영을 뜻하는 캠핑(Camping)이 합해진 오토캠핑은 단어 그대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캠핑을 뜻한다. 흔히 떠올리는 캠핑카 여행뿐 아니라 레저용 차량에 텐트를 싣고 떠나 차 옆에서 야영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얼마든 이동할 수 있고, 무거운 캠핑 도구 나르느라 짐만 빨 일도 없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캠핑으로 안성맞춤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화된 오토캠핑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일본이다. 오사카 시내에서 차로 약 한 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고우타키지 캠핑장(光滝寺キャンプ場)은 다키하타댐(滝畑ダム) 상류에 있다. 오토캠핑장 외에도 방갈로 24동, 샤워실, 오크 텐트 등이 살뜰히 마련돼 있어 편리하다. 캠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사카의 자연 100선'에 드는 다키하타 폭포가 있어 주변을 둘러봐도 좋을 듯하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설된 오토캠핑 사이트는 망상 오토캠핑장이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푸른 바다를 보며 휴식을 누릴 수 있어 인기가 좋다. 캠핑장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해변까지 따로 마련돼 있다. 이곳의 장점은 공들인 흔적이 역력한 편의시설이다. 잘 정돈된 캠핑 사이트는 기분이고 인라인 스케이트와 축구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 카페테리아까지 갖춰져 모두가 즐거운 캠핑을 만끽할 수 있다. 인근의 망상 해변에서 다양한 해상스포츠를 실컷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장엄한 풍경을 품고 있는 소금강 오토캠핑장은 캠핑의 황홀함을 만끽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다. 산 좋고 물 좋은 강원도 강릉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대한민국 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토캠핑장 중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췄다. 캠핑카 200여 대와 텐트 300여 동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대형 텐트도 무리 없이 들어설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곳곳에 마련돼 있다. 수려한 풍경과 깔끔한 시설로 입소문이 자자해 주말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다.



혼자 떠나는 여행 백패킹

깊어지고 나른다는 뜻의 백패킹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튼튼한 발과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 최소한의 슬립하고 가벼운 장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솔로 캠퍼에게 딱 맞는 캠핑 종류 중 하나다. 캠핑의 진정한 얼굴은 백패킹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마니아도 적지 않다. 인적이 드문 자연 속에서 심신을 힐링하기에 제격인 백패킹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진스탄(金石灘)은 중국 다롄시 북동부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중국 국가관광휴양지로 꼽힐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정취를 보여준다. 약 3억~9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기암괴석이 있어 신이 내린 조각공원이라고도 불린다.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의 예술품을 친철히 감상해보자. 구석구석을 구경하다보면 나홀로 캠핑족도 외로울 새가 없다. 관광구 내의 해수욕장 근처에서 자유 캠핑이 가능하다.

일본 구마모토에는 아소 비라마일드(阿蘇ビラマイルド) 캠핑장이 유명하다. 규슈 중부에 위치한 아소산 국립공원에 가면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칼데라 활화산인 아소산의 웅장한 모습이 그림같이 펼쳐져 있다.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연이 주는 경이감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이곳의 장점은 타프, 침구, 바비큐 화로, 모포 등 취사도구가 구비돼 있다는 점이다. 캠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에는 사시사철 캠퍼들로 붐비는 곳이 있다. 낙원농원 캠핑장은 상쾌한 숲 속에 있고 작은 연못 주위에 캠프 사이트가 있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예약제가 아닌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다. 모든 캠퍼에게는 두루마리 휴지와 생수 2병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한번 방문한 사람들이 잊지 않고 또다시 찾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바야흐로 캠핑의 시대

캠핑은 새로운 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데 유용한 아웃도어 활동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오토캠핑은 무거운 장비로부터 캠퍼를 해방시켰으며 장비 종류의 확충까지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수상레저 장비까지 구비할 만큼 그 의미가 확대됐다. 캠핑은 점점 더 진화하며 장비를 발전시키고 캠퍼는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에코 캠핑, 오지 캠핑, 카라반 캠핑까지 다양한 영역에 손을 펼치면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졌다.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아시아인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캠핑 여행. 이제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맞는 캠핑을 선택해 새로운 트렌드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다.

09 September 2013

Festival Calendar

포항, 한국
8월 30일~9월 30일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
장소 영일대해수욕장, 포항 운하 일원

철강의 고장 포항의 문화와 철학을 담은 세계 유일의 스틸 축제가 개최된다. 30여 명의 국내 작가가 참여해 작품 설치를 통한 도시 경관 조성에 나서게 된다. '신철기시대의 대장장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32일간 개최되며 개막식과 작품 투어, 두드리 대장간의 철공예 제작소, 아트노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꾸며진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9월 1일 ~ 9월 8일
자카르타 - 재팬 마쓰리
장소 JS 루안자 호텔, 플라자 세나안 등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축제, 자카르타 - 재팬 마쓰리가 자카르타에서 진행된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을 기념해 열리는 이 행사는 지난 2008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올해 행사는 수교 55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이벤트로 구성되며 일본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 축제 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한국
9월 6일~9월 7일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장소 전남대학교, 아시아문화마루 일원

세계 각국의 음악 문화를 한자리에서 접해볼 수 있는 축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열린다. 각 나라, 지역의 민속음악에 뿌리를 두고 대중음악과 접목되어 현대화된 음악인 월드뮤직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세계 뮤지션이 참가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음악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고 글로벌 월드뮤직 시장에서 국악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방콕, 태국
9월 13일 ~ 10월 14일
인터내셔널 댄스 & 뮤직 페스티벌
장소 태국 걸처 센터

발레와 현대무용, 오페라, 클래식, 재즈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댄스 & 뮤직 페스티벌을 방콕에서 만나보자.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 행사에는 유럽과 아시아, 미주 지역 등에서 다양한 아티스트가 참여하며 수백 명의 예술가가 장장 5주간에 걸쳐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게 된다. 날짜별로 열리는 공연이 모두 다르고, 공연을 쉬는 날도 있으니 미리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산, 한국
9월 14일~10월 13일
2013 바다 미술제
장소 송도해수욕장 일원

기억과 흔적, 사람에 관한 주제로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바다 미술제가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30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송도해수욕장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주제로 제작된 작품 35점이 해변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마련되어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르쿠츠크, 러시아
9월 중(날짜 미정)
스타스 온 바이칼
장소 미정

올해로 8회를 맞은 이르쿠츠크의 국제 뮤직 페스티벌, 스타스 온 바이칼이 오는 9월 중 개최된다. 모두 12개의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데, 세계적 명성을 지닌 거장과 젊은 아티스트 등 다양한 뮤지션이 참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특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데니스 마츠예프가 참가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11 *October, November 2013*



안동, 한국
9월 27~10월 6일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장소 안동 시내, 탈춤공원, 하회마을 등

울가을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동양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수준 높은 문화 축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축제에서는 정적인 마음의 고요함과 탈춤이 가진 신명을 통해 동적인 발산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축제를 신명 나게 즐기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안동 문화를 답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어진다.

호치민, 베트남
10월 11~12일, 15~19일
옥tober페스트 베트남
장소 원저 플라자 호텔 제이드볼룸

독일 원현에 옥tober페스트가 있다면 베트남 호치민에는 옥tober페스트 베트남이 있다. 독일 맥주 축제의 열기를 베트남에서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옥tober페스트 베트남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다양한 종류의 독일 맥주를 베트남의 전통 음식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독일 민속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도 초청되어 축제의 열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란다. 울가을에는 호치민을 찾아 흥겨운 맥주 축제를 즐겨보자.



익산, 한국
10월 25일~11월 3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장소 중앙체육공원

가을을 대표하는 꽃, 국화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가 전라북도 익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가을이 절정을 맞는 10월 말에 개최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12만 점에 달하는 국화 작품 전시회, 우수 작품 전시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미륵사지석탑과 왕궁리 5층석탑, 행복의 성 등 대형 국화 조형물이 조성되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전, 한국
10월 3일~10월 6일
대전 국제 푸드 & 와인 페스티벌
장소 대전무역전시관, 대전컨벤션센터, 엑스포 한빛광장

대전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푸드 & 와인 페스티벌을 만나보자. 와인과 동서 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며 와인은 물론 한국의 전통주와 사케, 커피, 차 등 다양한 식음료가 관람객을 맞는다. 또, 제과제빵과 초콜릿, 와인 액세서리 등 와인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 국가대표 소믈리에 대회와 세미나, 와인 스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10월 27일
자카르타 마라톤
장소 자카르타 일원

아시아 스포츠의 메가 이벤트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자카르타 마라톤이 오는 10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다. 매년 40여 개국의 선수가 참가하는 이 대회를 보기 위해 10월이면 많은 관광객이 자카르타를 찾는다. 특히, 올해 마라톤 코스는 자카르타 대성당, 울드 바타비아, 이스티클랄 사원 등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유명 관광지를 포함하는 루트로 구성됐다.



코타바루, 말레이시아
10월 3일~10월 10일
코타바루 국제 푸드 페스티벌
장소 다타란 무하마디 일원

코타바루의 새로운 명물, 국제 푸드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이 참가해 전통 음식을 전시,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에는 8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음식은 물론 다양한 식음료와 지역 전통 수공예품 등도 함께 전시된다.

창원, 한국
11월 14일~11월 17일
경남특산물박람회
장소 창원컨벤션센터

경상남도 전역의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11월 14일부터 4일간 진행되는 경남특산물박람회에는 경남 지역의 농축수산물과 공예품, 시군 관광 상품 등 다채로운 제품이 전시될 예정. 또, 2013 친환경 농산물 명품대회, 해외 바이어 초청 구매상당회, 명품 과일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신장, 중국

신장 - 차이나스 타이베이 정기노선 신설

지난 4월, 중국 신장과 차이나스 타이베이를 잇는 중국남방항공의 정기노선이 최초로 개설되었다. 우루무치 국제공항과 타이베이 국제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신장과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최초의 직행 정기노선이다. 중국남방항공의 신장분공사에 따르면 첫 항공기(보잉 757)에는 173명의 여행객이 탑승했는데, 이는 전체 탑승률의 90%에 달한다. 노선은 현재 매주 월·목·토요일에 운항되고 있으며 보잉777기를 투입, 매회 3~400여 명의 여객을 수송하고 있다. 신장과 차이나스 타이베이의 여행업 관계자들은 이 노선이 개통됨에 따라 신장에서 차이나스 타이베이를 찾는 여행객 수가 올해 3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치와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교류 역시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하이, 중국

TPO Travel Trade 2013 - China 개최

TPO의 중국 해외 공동 마케팅 행사인 TPO Travel Trade 2013 China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TPO의 한국 회원도시인 부산과 군산, 김해, 전주, 안동 등 5개 도시가 참가해 각 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5월 9일 화정 호텔에서 진행된 TPO 회원도시 관광교역 설명회에서는 TPO와 상하이 국역집단상해유한공사(CITS)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TPO 및 5개 회원도시와 상하이 CITS는 이를 통해 향후 여행 상품 개발과 정보 교환, 홍보 활동 등을 협력하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TPO는 상하이 세계여유박람회에 참가 도시 공동 부스를 운영해 일반 참가자를 대상으로 TPO 회원도시의 관광자원과 상품을 함께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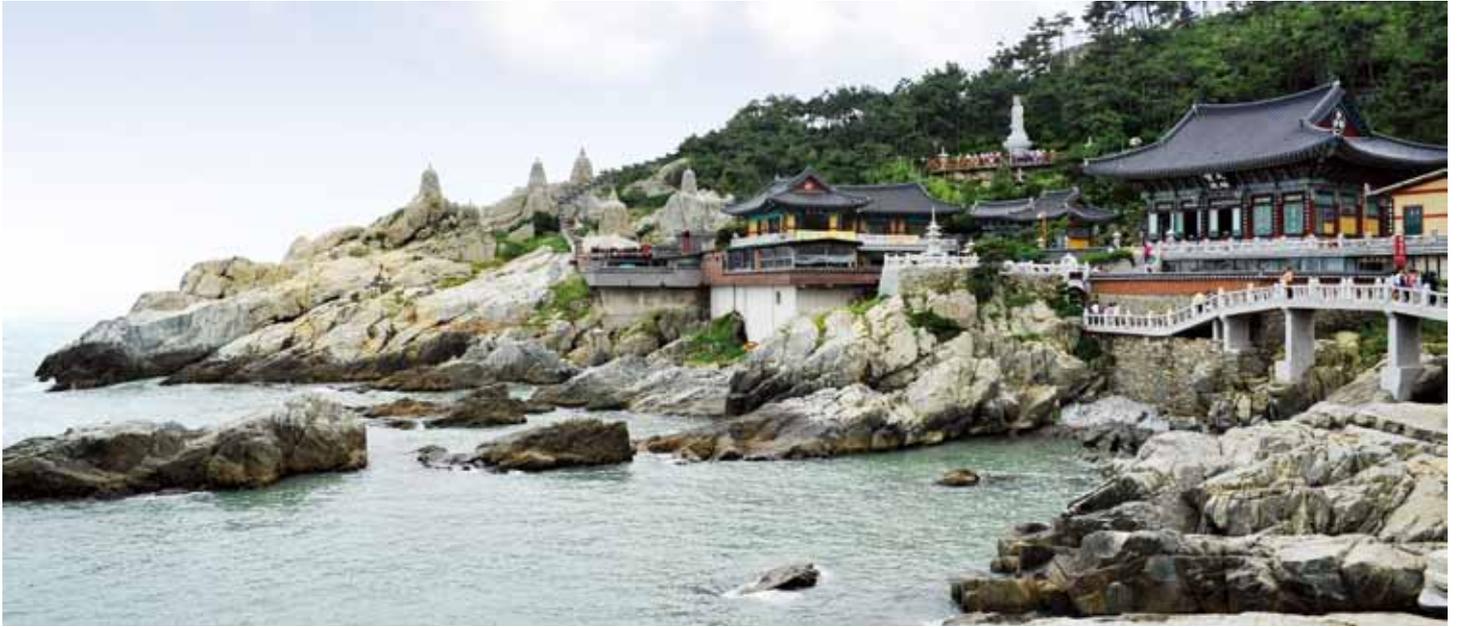
와쇼이, 일본

대규모 여름 축제 성대하게 진행

8월 첫째 주 주말, 일본 와쇼이에서 성대한 여름 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와쇼이 여름 축제는 기타큐슈의 주요 행사들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는 대규모 여름 축제로 고쿠라 성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일본 전역에서 150만여 명이 방문해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지인들의 댄스 경연과 거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백만인 댄스 퍼레이드'와 이색적인 전기 부품으로 장식된 자동차 쇼 '하나 지도샤', 최근 들어 명성을 얻고 있는 댄스 이벤트 '와쇼이 요사코이 기타큐슈'가 인기를 끌었다. 또, 6000여 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장식하는 피날레 행사 '여름축제컬렉션'이 화려하고 감동적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부산, 한국

Tourism Universiade 2013 성황리에 종료

TPO와 부산광역시, 동명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Tourism Universiade 2013이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 부산여자대학교와 동명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We are the Future Tourism Leader'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도시지역 대학생들의 문화관광교류와 관광전문가 육성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12개국 33개 도시에서 총 145명(총 105개팀)의 학생이 2인1조 또는 개인별로 참가해 출신 도시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펼쳤다. 행사는 요리, 도시 여행 상품 기획, 칵테일, 바리스타의 4가지 부문 경연과 세미나, 부산시 관광자원 시찰로 구성되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경연대회. 요리 경연대회에는 참가자들이 준비한 출신 도시의 전통 요리들이 출품되었고 도시 여행 상품 기획 경연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한 도시 관광 상품이 소개되었다. 행사의 마지막 날은 모든 참가자가 부산시 일대를 관광하며 함께 추억을 만들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서울, 한국

한국 TPO - 한국여행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 TPO와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 7월 3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향후 상호 간의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치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TPO 회원 도시의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과 현지 방문 조사 활동 협력, 여행 업체의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과 주환명 TPO 사무총장, 이용승 <AB-ROAD> 대표를 비롯한 여행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여행업협회의 양무승 회장은 "한국여행업협회와 TPO는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며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환명 TPO 사무총장은 이에 "TPO의 궁극적 활동 목표는 관광 업계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도시 정부의 협력에만 치중되었던 TPO의 활동 범위를 넓혀 관광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관련 정보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에는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과 주환명 TPO 사무총장, 이용승 <AB-ROAD> 대표를 비롯한 여행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여행업협회의 양무승 회장은 "한국여행업협회와 TPO는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며 "도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환명 TPO 사무총장은 이에 "TPO의 궁극적 활동 목표는 관광 업계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도시 정부의 협력에만 치중되었던 TPO의 활동 범위를 넓혀 관광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하는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타이중,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안환창음악제 성료

타이중 시의 유일한 해양음악 축제인 대안환창음악제가 지난 8월 10일 많은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축제 첫 날인 10일에는 다양한 록그룹이 초청되어 여름 바닷가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11일에는 중국 전통의 칠석정인절을 기념한 '대안정인지야' 공연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음악 공연이 열려 타이중 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흥겹게 했으며 모래 쌓기 경연과 비키니 선발대회, 철인 3종 경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또, 5만 타이완달러가 걸린 창작곡 경연 대회도 진행됐다. 시청의 관광여유국은 음악과 해변, 비키니가 어우러진 축제를 전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이 축제를 열었으며 행사는 매년 여름 진행된다.





동양의 진주 페낭

다토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 시장

Dato' Patahiyah Binti Ismail

동서양의 다양한 전통과 종교, 문화가 혼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말레이시아의 페낭. 말레이시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는 페낭은 어떤 관광자원을 품고 있을까. 페낭 섬 시의회와 페낭의 주도 조지타운을 이끌고 있는 다토 파타히야 빈티 이스마일 시장이 페낭의 아름다움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전한다.

〈Tourism Scope〉 독자들과 TPO 회원도시 관계자들에게 조지타운과 페낭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말레이시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페낭은 '동양의 진주' '인도양의 에메랄드'라는 별칭을 지닌 아름다운 섬입니다. 조지타운은 페낭 섬의 주도이지요.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3세의 이름을 딴 지명인데, 지난 1957년 1월 1일 말레이시아 왕실에 의해 도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조지타운은 아주 다양한 문화와 음식,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또 동남아시아의 많은 도시 중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도시로 손꼽히지요. 어떤 건물들은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겼을 정도입니다.

페낭이 관광지로서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조지타운은 지난 2008년 7월 7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과 다양한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건물 등 문화 체험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페낭 힐과 케록시 사원, 아름다운 리조트, 현대건물이 지은 페낭대교 등 볼거리도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 있다면요?

조지타운을 방문하면 우선 역사와 문화 유산 탐방로를 거닐어보아야 합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웅장한 이슬람 사원과 중국식·인도식 불교 사원, 가톨릭 성당 등 다양한 종교 유산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다양한 종교의 사원들이 모두 걸어서 5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저마다의 종교와 전통을 가진 수많은 사람이 타인의 종교와 문화, 축제, 전통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것이 바로 페낭과 조지타운의 문화인 셈입니다.

페낭의 문화와 아름다움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음식을 맛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페낭에는 수많은 레스토랑이 있고, 어디서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데, 특히 24시간 맛볼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을 추천합니다. 페낭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다양한 전통 음식의 세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TPO의 회원도시로서 현재 수립해놓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나요?

조지타운은 지난 2012년, 제5회 TPO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전례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의 지대한 협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물론 시민들의 도움도 든든한 기반이 되었고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2015년에 열릴 예정인 TPO 총회 개최 경쟁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페낭과 조지타운의 향후 발전 계획도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인적자원 개발과 교통 체증 해소, 그리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입니다. 그렇게 되면 페낭은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겠지요. 페낭의 꿈은 국제적이고 기능적인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는 향후 10년간의 경제 개발 계획인 페낭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경제적 활력과 사회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 가난, 빈곤과 사회경제 불균형 해소 △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 매력적이고 숙련된 인적자원 개발 △ 사회의 민주적 요소 발전 △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정부 행정의 발전 등 모두 5가지입니다.



Q4. 페낭과 조지타운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많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축제들이 열리는지 알려주세요.

페낭은 축제의 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중 내내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립니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핼러윈과 크리스마스 축제, 용선 경주대회, 재즈 페스티벌, 댄싱 챔피언십, 마라톤, 이슬람 문화 행사 등 20여 개의 행사가 열렸고, 또 열릴 예정이지요. 내년 상반기에도 역시 설 행사, 킥복시 전등 축제, 월드뮤직 페스티벌, 송크란 페스티벌 등 수십여 개의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페낭과 조지타운을 방문하면 언제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TPO의 다른 회원도시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조지타운과 페낭의 관광 업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주는 다른 모든 회원도시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TPO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 업계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성공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요.

더 많은 회원도시의 관계자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조지타운을 더 많이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지요. 이곳, 페낭으로 오시는 겁니다. 멀리 있지만 집처럼 편안한 페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